

# 정당 현수막 주말에만 5000장 철거

### 광주시 내년 1월까지 일제 정비 계시대 233면 지정 등도 병행

광주시가 '시민 안전'과 '정당 활동 자유 보장'이라는 '일석이조' 효과를 거두기 위해 정당 중심의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사진>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2024년 1월 19일까지 100일간 5개 자치구와 함께 불법광고물 정비를 진행한다.

시·구 합동점검을 시작한 첫 주말이었던 지난 14·15일에는 광주지역 일원의 불법 상업 현수막 5000여장을 정비한 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주요 사거리 횡단보도 30m 이내와 교통신호등의 높이 2m 이내에 설치돼 시민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는 정당현수막을 집중 정비했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 13일에도 5개 자치구, 시의회, 대한주택건설협회, 옥외광고협회 등과 함께 '결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한 현수막 정비 캠페인'을 추진했다.

이는 지난달 25일 옥외광고물 개정 조례를 공포한 데 따른 조치로, 정당 현수막은 행정동별 4개까지 지정계시대에 설치할 수 있다.



일제 정비에 앞서 광주시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정당 현수막 계시를 위한 지정 계시대 107기 233면을 지정했다. 또 행정안전부 기금 사업으로 1억9000만원을 확보했으며 내년 시비 예산을 더해 2024년 상반기까지 정당 현수막 우선 계시대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박진표 광주시 건축경관과장은 "횡단보도에 설

치된 정당현수막 등으로 시민의 불편이 컸던 만큼 현수막 정비에 많은 시민이 공감하고 있다"며 "시민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정당 자유 보장을 위한 지정계시대 확대 등에 노력하겠다. 또 정당 등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고 일제정비를 통해 쾌적한 도시,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도시공사 전기산업대전 참가 지역산단 홍보·투자유치 활동

광주 도시공사가 지역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홍보·투자유치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22일 광주도시공사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국내 최대 전기·발전 산업분야 전시회 '2023 한국전기산업대전-한국발전산업전'에 참가해 에너지 융복합산업단지 등 산업단지 홍보 및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했다.

도시공사는 이번 전시회에서 경제자유구역청과 공동으로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광주 에너지밸리 일반산업단지 ▲남구 도시첨단 산업단지 ▲인공지능과 연계한 신산업 육성 방안 홍보 등 투자유치 활동을 펼쳤다.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는 2022년 11월 착공했으며, 북구 오룡동·대촌동·월출동, 광산구 비아동, 장성군 남면·진원면 일원에 362만8000㎡ 규모로 2026년 말 준공 예정이다.

또 광주 에너지밸리 일반산업단지는 빛가람 혁신도시에 있는 한국전력공사와 연계해 차세대 전력에너지 산업분야의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민곤 도시공사 사장은 "전국의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우리 지역 산업단지인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에너지밸리, 도시첨단 산업단지를 적극 홍보해 지역 투자유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클라우드협의체 공식 출범

### 5개 자치구·공공기관 참여 공공서비스 혁신 가속화

광주시가 클라우드협의체를 공식 출범하고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17일 시청에서 시와 5개 자치구, 공공기관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광역시 클라우드협의체 발족식'을 가졌다. <사진> 클라우드협의체는 광주 공공클라우드센터에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이 교류를 통해 클라우드 생태계 조성과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혁신을 이끌어내기 위해 구성됐다.

개별 법이나 조례에 의해 설립된 기관까지 협의체에 포함해 클라우드 자원의 공동활용 등 비용 절감을 위한 통합 최적화에 나설 방침이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활용모델 시범사업'에 선정돼 국비 70여억원을 확보했으며, 자치구를 비롯한 15개 공공기관의 65개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했다.

광주시는 앞으로 '2030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을 수립해 클라우드 전환의 단계적이고 지속적인 통합을 실현할 계획이다.

협의체도 클라우드 기반 조정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참여기관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2030년까지 클라우드 100% 전환 완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공원·산책로 공중화장실 302곳 안전점검

### 광주시·구·경찰, 비상벨 등 확인

광주시는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가을철을 맞아 공원, 산책로 공중화장실 302곳에 대한 안전점검을 11월30일까지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광주시는 총 302곳(동 26, 서 60, 남 27, 북 76, 광산 113)의 공중화장실을 설치해 시설을 개보수하고 화장지 등 각종 편의용품을 지원하는 등 관리하고 있다.

광주시와 자치구, 경찰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점검에서는 비상벨 작동 여부,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 시설물 유지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특히 적외선카메라 및 전파탐지기를 이용해 환

풍구, 벽체 구멍 등에 위치한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 등을 단속하고, 공중화장실 비상벨과 경찰서 양방향 연계 정상작동 여부도 세심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광주지역 공중화장실에는 안심비상벨이 설치돼 112상황실로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 관할 경찰서에서 긴급출동 대응할 수 있으며, 안심비상벨을 누르면 문밖에 설치된 경광등에 불이 들어오고 사이렌 경보가 울려 주변에 긴급상황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해 범죄를 예방하고 있다.

송용수 광주시 기후환경국장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시민의 불안감을 줄이고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 광주시 CCTV센터 회선사업자 LGU+ 선정

### 2031년까지 3408회선 서비스

광주시는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방범용 등으로 사용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통신망 사업자로 LGU플러스를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방범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통신망 등 3408회선을 전용으로 이용하며, 2024년 3월부터 2031년 2월까지 7년간 이용하는 조건이다. 광주시는 LGU플러스에 196억원(연평균 28억원)을 월별로 공공요금으로 지급한다.

LGU플러스는 당초 76억원의 투자제안을 했으나, 광주시는 3차에 걸친 기술협상을 통해 회선료 절감 등 48억원의 투자효과를 이끌어내는 등 총 124억원의 투자효과를 거뒀다.

주요 투자-절감 내용은 ▲시스템 교체와 보강 26억원 ▲영상데이터 활용시스템 구축 18억원 ▲관제실 환경공사 25억원 ▲현장설비 교체 32억원 ▲회선요금 절감 등 23억원이다.

시는 이번 투자유치에 따라 기존 2기가급 속도에서 5배 빠른 10기가급으로 상향하고 장애대비

케이블랑을 이원화하는 등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전송장비를 최신 제품으로 교체, 기존보다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데이터를 기업과 연구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개발을 통해 데이터 분석과 개인영상에 대한 비식별화 처리 등 관련 설비도 구축하게 된다.

광주시는 성공적 사업추진과 원활한 협력을 위해 지난 13일 자문단 회의에 이어 17일 착수보고회를 가졌으며, 오는 27일 광주시와 LGU플러스, 인공지능(AI)산업융합사업단 3자간 업무협약도 체결할 예정이다.

박남주 광주시 시민안전실장은 "광주시 CCTV 관제센터 운영 10년째를 맞아 700여건의 범인검거와 5000여건의 사건·사고 예방활동의 성과를 거두며, 명실상부 시민의 안전지킴이로 역할을 다하고 있다"며 "역량과 경험이 많은 사업자가 선정돼 상호 협력해 안전도시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일교차 큰 가을, 여름보다 식중독 더 발생

### 광주보건환경연구원 주의 당부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이 일교차가 큰 가을철을 맞아 식중독 발생 우려에 따른 위생관리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여름철보다 9·11월 사이에 식중독 환자 발생 건수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광주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계절별 광주지역 식중독 환자 발생 건수를 분석한 결과, 총 270명 중 가을철(9·11월)이 99명(36.7%)으로 가장 많았으며, 여름철이 91명(33.7%)보다 그 뒤를 이었다.

일교차가 큰 가을철은 낮 기온이 높아 식중독균이 잘 증식되고, 조리된 음식을 장시간 상온에 보관할 경우 식중독 발생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는 게 보건환경연구원의 설명이다.

가을철 식중독은 주로 세균성 병원체가 원인이며, 최근 광주에서 발생했던 배달 도시락 관련 대규모 식중독도 살모넬라균이 원인병원체로 밝혀졌다.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이 광주지역 12개 의료기관과 연계해 매주 실시하고 있는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감시사업 분석에서도 최근 5주간 검출된 병원체 66건 중 병원성대장균 29건(43.9%), 살모넬라균 15건(22.7%) 등 식중독균이 67%를 차지했다.

강경리 수인성질환과장은 "식품이 식중독균에 오염돼도 냄새나 맛의 변화가 거의 없어 육안으로는 판별할 수가 없다"며 "특히 온도가 높은 차량 내부, 트렁크 등에 조리식품을 2시간 이상 방치할 경우 식중독균 증식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이스박스에 넣어 신선하게 운반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제안하면 거절하고!

발견하면 신고하고!

한사람의 보험비로  
전국민의 경제부담 줄

# 보험사기 ZERO

-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신고 포상금**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

경찰청
 금융감독원
 h-well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IAA 한국보험대리점협회